

‘금강경’ 독송하며 100일 수행결사

조계종, 자성과 쇄신 위한 2차 정진 입재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108배 정진 회향에 이어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해 <금강경>을 독송하는 제2차 100일 정진에 입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100일 금강경 독송 정진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100일동안 수행결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23일 회향한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에 이어 제2차 100일 정진 결사인 이번 금강경 독송 정진은 지난 3월23일 열린 ‘자성과 쇄신 입재법회’에서 “종무원 전원이 매일 아침마다 수행을 생활화 하겠다”며 수행결사 동참을 결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원 200여 명은 오는 7월 5일까지 평일 업무시작 전인 오전8시50분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전체 종무원이 참가하는 금강경 독송 정진을 펼친다. 금강경 독송은 총32분인 <금강경>을 1~12분, 13~17분, 18~32분 등 3부분으로 나눠 매일

1/3씩 독송하게 된다.

이번 금강경 독송 정진은 지난 3월23일 발표한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과제’를 통해 “각종 의례 및 의식을 우리말로 표준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구체적인 실천행으로써 모든 의식이 우리말로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108배 정진이 원만히 회향하고 2차로 금강경 독송 정진에 입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무부장 영답스님이 중심을 잡고 100일 동안 매일같이 죽비를 치며 108배에 동참한 공덕이 컸기 때문”이라며 영답스님을 치하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더라도 관객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것은 오케스트라 단원 개개인의 화합된 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모든 종무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민족문화 수호와 자성과 쇄신 결사에 동참함으로써 이 대작불사가 여범하게 회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지난 3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을 비롯한 산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제2차 100일 입재법회를 거행했다. 신재호 기자

“탈북자 지원 전개하겠다”

총무원장 스님 하나원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28일 안성 하나원을 방문, 탈북자의 안정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나원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할 수 있는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총무원장으로서서는 처음으로 하나원을 위로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탈북자 포교심도량 하나원 법당을 참배한 뒤 하나원 교육생들이 불교를 통해 지친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육 일일이 단주를 나눠주며 위로했다. 또한 하나원 퇴소자 250여 명에게 이불 1채씩을 선물하며 빠르게 남한사회에 정착하길 기원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하나원 포교를 전개하고 있는 칠장사 등 안성시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조계종 포교사단 통일분과 통일2팀 포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탈북자포교 노력을 격려했고 전국 각 사찰과 연계한 탈북자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각 지역 사찰이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씬터 및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오른쪽)은 지난 3월28일 안성 하나원을 방문, 탈북자들을 격려했다.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동국대 한방병원과 연계한 하나원 의료봉사를 전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혔다. 박인탁 기자

辭令
박광호 命 대구경북지사장
2011년 3월 29일자
불교신문사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신문 캠페인 재적사찰에 ‘자성과 쇄신’의 등을 밝힙시다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의미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 같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진행돼온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우리 불교도들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신문은 불자님들과 함께 ‘자성과 쇄신을 발원하는 연등을 답시다’라는 모토로 자비나눔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각자 재적하고 있는 사찰에는 물론이고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비의 연등을 달아 세상을 밝힙시다.

- 수행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힙시다

그동안 우리는 스님들의 수행공간 마련을 위한 불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요, 불사라고 하면 의례히 주지 스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라 인식하고 불사동참에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올해부터는 우리 불자들의 힘으로 수행자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등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 생명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힙시다

이웃에 무수히 희생되는 생명들을 보고 연민과 자비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유령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희생된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해 연등을 밝힙시다.

- 평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힙시다

지구라는 같은 태양계에서 사는 우리 종생들은 언제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족간 싸움과 국가간에

전쟁을 하며 서로 증오심을 쌓아가는 우리 종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게 하는 발원을 하는 평화의 연등을 밝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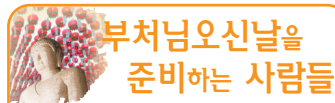
- 문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힙시다

우리 민족문화가 홀대받는 시대에 모든 이들이 우리 것에 소중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문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힙시다. 그동안 우리는 남을 탓하면서 소중한 우리문화를 지켜나가려는데 소홀하지 않았는지요, 정부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 불자 스스로 불교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려는 발원을 세우는 연등을 밝힙시다.

- 나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힙시다

혹여 우리 옆에서 소외받으며 어렵게 사는 이웃을 보살피는데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결손·조손가정의 아이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못본척 눈을 돌리지는 않았는지요, 조그마한 정성의 손길을 뻗으면 어려운 이웃은 우리와 같이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燈 만들며 고국의 정 나뉘요”



④ 김포 보타사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파누스를 만들어 하늘에 띄우고 이를 동안 축제를 벌여요.”

지난 3월27일 김포 보타사. 라나 씨가 등을 만들며 유장한 한국말로 방글라데시의 부처님오신날 모습을 소개한다. 이날 모인 15여명의 노동자는 모국을 상징하는 파누스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다. 파누스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매년 부처님오신날 공동으로 제작하는 전통 등이다. 원통형 모양의 등이 완성되면 열기구 원리를 이용해 공중에 띄운다.

이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능숙한 솜씨로 빨대에 불일 색색의 종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오리고 연결해 붙였다. 33㎡(10여평) 남짓한 작은 법당에는 어느새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디펜 바루아 씨는 “고향에 있을 때 마를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집 근처 절에서 파누스를 만들어 하늘에 띄우며 가족들의 행복을 빌었다”며 “악기를 연주하며 부처님께 귀의하



지난 3월27일 김포 보타사에 모인 이주 노동자들이 등에 붙일 종이를 펼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모국 전통등 만들며 외국생활 시름 달래

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사다남 씨는 “보타사 부처님께 항상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절을 만들어준 한국스님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두 시간 쯤 지나자 파누스 하나가 완성됐다. 성인 남자 허리가 지 오는 크기였다. 라나 씨는 “파누스를 공중에 띄우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도 함께 날려 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수 백 개의 등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있음을 깨닫는다”고 밝혔다.

종교는 달라도 보타사에서는 금세 하나가 된다. 이슬람교도인 아림 씨는 “이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아 몇 달 전부터 주말마다 보타사에 나오게 됐다”며 “파누스를 보고 있으니 친구들과 가족 생각이 절로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보타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으로 주말마다 법회를 열고 있다.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이 이곳의 운영지원을 맡고 있다. 씬터와 이주민지원센터 역할을 겸하고 있어 쉬면서 부담 없이 밥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랑방으로 자리잡았다.

김포=홍대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무료상담 080-888-5000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님을 위한 상조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지사항 1.종도회부담금 및 환급기준 가.표준안 제15조 제 규정의 의한 나.환급금액은 신청일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만기3개월 후 해지시납입금액의100% 환급 2.소비자 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금품 및 서비스 내용 가.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마 100%(중국산)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제직조(국내산)나.권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오동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시:오동나무(중국산) 1.8~3cm 다.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 *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장 임원캐딜라(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 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상물별 기본 무료제금 이외의 거리 추가시 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금지역 및 행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라.도우미 추가시:1인당 8만원(10인 기준 제금 2009년 기준임) 4.총고객 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및 공인회계사 감사여부 (2011년 02월 28일 기준) 가.상조관련 자산 : 397.9억원 나.총 고객 환급의무액 : 355.9억원 다.총 고객 환급의무액 대비 상조관련 자산 보유비율 : 112%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회원의개별인) 5.고객불입금의 관리방법 고객불입금의 4.9%는 별도의 계정으로 독립 및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